



협회 건축정보센터 구축을 서두르자 ①

정보화시대를 우리 것으로

Last Entrance to Information World

옥태범 / 그룹모인 건축사사무소, 본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by Ok Tae-Beom

무슨 거창한 '정보화 시대'를 논하기에는 본인의 지식이 일천하지만, 그러나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데 그 구슬조차도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으니 '시작이 반' 이라고 기왕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구슬들을 모아서 쉽게 좀 꿰어 보자는 말씀.

단, 국내외 정기 간행물들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사무실, 게다가 그 방대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인덱스까지 갖춘 사무실, 설계에 관한 자료와 도면, 디테일 라이브러리까지 구축된 사무실, 수많은 질의·회신과 민원 해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무실, 건축관련 법규들이 철저히 업데이트되는 사무실, 신기술과 재료의 성능과 시방, 가격까지 두루 꿰뚫은 사무실, 현장에서의 충실한 감리가 다음 설계에 충실히 피드백되는 사무실, 혹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사무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자료따위는 필요없이 내 머리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사무실이라면 이 줄고에 귀한 시간을 할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사례조사를 하려니 책이 없고, 책은 있어도 일일이 찾을 엄두가 안나고, 기존의 자료들을 창조하기에는 수소문하기가 너무 힘들고, 장기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보니 불과 5, 6년전 사무실 자료 찾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 준공된 건물을 증축하려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법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지난번에 구입한 법규책의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지 일일이 관청에 확인해야 하고, 멀리 있는 지방의 주차장 조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직원 파견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제품 카다로그의 일방적인 광고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도 여의치 않

고, 노출 콘크리트 마감의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감리한 분을 만나 조언 듣기도 쉽지 않고, 가진 책은 많아도 풀어서 정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묘수가 궁금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별써 어느 대학교에선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는 것까지 만들었다던데, 하물며 건축사협회가 현재의 당면한 요구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앓은뱅이 공룡(?)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하여 PC통신에 우리 건축사협회의 방을 만들자는 말이다. 그리고 그안에 각종 소그룹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보따리도 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요긴한 자료 공개해서 존경(?)도 받고, 표준화의 기준도 되고, 또 누군가 그 자료를 발전시킨다면 그 또한 공개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전기한 온갖 구차한 아쉬움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첫 발자욱이 되리라 생각한다.

남들보다 고생은 1/10로 줄이고, 효율은 10배로 높이는 길, 이것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세계의 특권이다.

별써 외국의 유명 사무소들이 속속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지금—

.....

막차 떠나기 전에 표부터 끊자.